

타이거즈 반등 열쇠는 타선의 新바람

류승현·최정민·황윤호·박준태 등 신예 활약
베테랑 경험·힘과 조화로 전력 극대화 해야



신구 조화가 KIA 타이거즈 반등의 열쇠다. KIA는 지난해 베테랑들의 경험과 힘을 앞세워 'V11'을 이뤘다. 특히 타선에서 베테랑들의 힘이 돋보였다.

전·현직 주장 이범호와 김주찬이 주축이 된 타선에 안치홍, 김선빈, 최형우, 배나디나, 이명기, 김민식, 나지완이 우승을 이끌

었다. 올 시즌 KIA는 '우승 멤버' 그대로 시즌을 시작했다. 개막 2연전부터 3개의 홈런 포함 장단 28안타를 터트리면서 KIA의 2018시즌도 뜨겁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팀타율도 3할을 유지하면서 내내 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5할 승률에 갇힌 5위'가 KIA의 현실이다.

결정적인 순간의 폭발력이 떨어지면서 득점 생산에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타율에 비해 떨어지는 승률 만회를

위해 새 바람이 필요하다. KIA '우승 멤버'들의 평균 나이는 33.6세다. 1990년생 안치홍이 29세로 타선의 막내다.

지난주 안방에서 6연전을 가졌던 KIA는 2승 4패의 전적을 거두는 데 그쳤다. 패기로 무장한 상대 타선에 허를 찌리면서 넥센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에 각각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약재의 연속인 넥센은 1999년생 김혜성 등을 비롯해 이정후(21), 김규민(26), 초이스(30), 박병호(33), 김하성(24), 김민성(31), 임병욱(24), 주효상(22) 등 평균 나이 25.7세의 라인업으로 KIA 마운드를 공략하면서 위닝시리즈를 확정했다.

신예 선수들로 내부 경쟁을 극대화하는

'화수분 야구' 두산의 힘도 여전했다.

노련한 양의지(32)-김재환(31)의 파워를 앞세운 두산은 허경민, 박건우 '90동기'들의 결정적인 타격으로 위닝시리즈를 쟁겨갔다. 류지혁(25)도 멀티히트로 KIA 전 타율을 0.412로 끌어올렸다.

타선의 변화를 위해 KIA는 먼저 엔트리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일 잇단 사구 여파로 컨디션이 떨어진 나지완을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고졸 3년 차 류승현을 처음 1군에 등록시켰다.

등록 첫 날 5번타자로 선발 출장한 류승현은 첫 경기에서 멀티히트와 함께 1타점을 올리며 선배들을 긴장시켰다.

내·외야를 오가면서 최정민이 띄운 경쟁 분위기에 박준태도 선발 출장한 3일 스리

런을 날리며 엔트리 경쟁에서 생존했다.

이날 대주자로 들어갔던 황윤호는 10회 말 2사 만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끝내기 안타를 터트리면서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타석에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연습할 때부터 실전이라 생각하면서 공 하나하나에 집중한다"는 황윤호는 "앞선 박지국과의 대결에서 타이밍이 늦은 모습이었다.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려고 했다. 바로 승부를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 있게 스윙을 했다"며 끝내기 안타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간절함'을 무기로 한 새 얼굴들의 활약이 명성에 어울리지 않은 KIA 타선의 힘을 극대화할 무기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라사랑나무' 배지 달기
KBO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



인내 나신다.

나라사랑나무는 선열들의 애국심과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버팀목을 상징한다. KBO는 2012년부터 나라사랑나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KBO 리그 10개 구단 선수단 전원은 5일부터 7일까지 경기가 열리는 잠실, 고척, 문학, 수원, 마산 5개 구장 주중 3연전에서 모자와 헬멧에 나라사랑나무 패치를 부착하고 경기에 나선다.

패치는 상단에 나라사랑나무 심볼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며 하단에 '6월 호국보훈의달' 문구가 쓰였다.

이 밖에도 KBO와 10개 구단은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처와 연계해 밀리터리 유니폼 착용, 국가유공자 시구 및 시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신태용호 '베스트 11' 최종 공개 모의고사



2018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 기성용이 4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레오강 슈타인베르크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2일까지 2번의 평가전을 치른 뒤 월드컵 베이스 캠프인 러시아 상트페테르 부르크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내일 오후 9시10분 볼리비아 평가전 ... 손흥민·황희찬 투톱



FIFA WORLD CUP RUSSIA 2018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둔 신태용호가 볼리비아와 평가전에 베스트 11을 가동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7일 오후 9시 10분 남미의 '북방'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볼리비아전은 최종 엔트리 23명을 확정 한 후 첫 A매치인 데다 11일 세네갈과 평가전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러시아 월드컵

드컵 선발 라인업을 점쳐볼 마지막 '공개 모의고사'다.

신태용 감독은 오스트리아 캠프 입성 후 첫 훈련을 마치고 "월드컵 때 펼칠 전술과 작전, 베스트 11은 모두 확정된 상태다.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는 한 내가 가진 해법으로 러시아 월드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볼리비아와 평가전에 대표팀의 최정예 태극전사들을 가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7위인 볼리비아는 한국(61위)보다 4계단 높지만 월드컵 남미예선에선 10개 팀 중 9위로 탈락했다.

역대 A매치 상대전적에서는 1994년 미국 월드컵 본선에서 한 차례 만나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신태용 감독은 4-4-2 전형이나 3-5-2 전형 중 어느 것을 쓰더라도 투톱으로 손흥민(토트넘)-황희찬(잘츠부르크)을 고정한 상태다.



신 감독은 앞선 인터뷰에서 "우리는 원톱으로 상대를 이길 개인 능력이 안 된다"면서 투톱 시스템을 언급했다.

골키퍼는 김승규(빛세 고베)가 사실상 주전으로 낙점을 받았다. 김승규는 등번호에서도 주전 수문장의 상징인 '1번'을 받았다.

미드필더진과 취약 포지션인 수비라인에 누가 배치될지가 관심거리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과 '프리킥의 달인' 정우영(빛세 고베)이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전형에 따라서는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

로 나설 수도 있다.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는 이재성(전북)의 기용이 점쳐지는 가운데 부상으로 탈락한 권창훈(디즈)이 맡아왔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신 감독의 고민거리다.

20세의 당돌한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와 온두라스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린 문선민(인천)의 깜짝 기용 가능성도 있다.

수비진은 발목 부상에서 회복한 장현수(FC도쿄)가 주축으로 나설 전망이다.

포백 수비라인에서 장현수의 중앙수비수 파트너로는 김영권(광저우)과 윤영선(상남), 정승현(사간도스), 오반석(제주) 4명이 경쟁한다.

또 세 명의 수비수가 뒤를 받치는 상황에서는 장현수를 주축으로 스리백 환경에 익숙한 윤영선, 오반석이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

왼쪽 풀백으로는 김민우와 홍철(이상 상무), 박주호(울산)가 자리를 다투고 있고, 오른쪽 풀백에는 이용(전북)이 고요한(서울)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호 두번째 홈런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두 번째 홈런을 쏘아 올렸다.

피츠버그 산하 싱글 A 브레이든턴 머로더스에서 뛰는 강정호는 5일 열린 플로리다 파이어 프로그스(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산하)와의 홈 경기에서 3-1로 앞선 6회 우중간 팬스를 직선타성으로 넘기는 2점 홈런을 터뜨렸다.

싱글A 출전 2경기 만에 만루 홈런으로 짜릿한 손맛을 본 뒤 이날 만에 나온 홈런이다.

3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한 강정호는 홈런을 포함해 4안타로 3타점을 올리며 팀의 5-2 승리를 이끌었다.

강정호는 1회 우전 안타로 시동을 건 뒤 1-1인 3회 1타점 중전 적시타를 날렸다. 이 안타는 결승타가 됐다.

5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와 우전 안타를 친 강정호는 6회 주자를 2루에 두고 2점짜리 어치를 그렸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 취입 비자를 얻어 지난달 2일 팀의 스프링캠프 시설이 있는 브레이든턴의 파이리츠시티에 합류한 강정호는 지난주부터 상위 싱글 A 경기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노하우

베이징에 전수한다

평창조직위, 중국 행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경험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수하기 위한 '평창 2018 디브리핑' 행사가 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해 8일까지 이어진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5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이회범 2018 평창조직위 위원장, 차이치 2022 베이징조직위 위원장, 구닐라 린드베리 IOC 조정위원장 등이 참가한 '평창 2018 디브리핑' 행사가 전일 중국 베이징의 베이징조직위 주사무소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회범 위원장은 개회식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흑자 올림픽을 실현했다"며 "한국 정부와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국제경기연맹,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올림픽을 달성했다. 성공 경험을 2022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